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8차 정기회의록

일시 3/15(수) 13:30

장소 보문동 주민센터 2층 북카페

인원 김경서, 김기민, 김종환, 김희자(부의장), 박정근, 박정애, 배정학, 서정례, 송민기, 유제훈, 이선영, 이종안, 전미희, 차정화, 홍수만(의장) 등 15명

위임 고경남, 박현숙, 이미경 등 3명

신규/참관 김연만, 장공임 등 2명

작성 김기민(간사)

- 성원 확인 (명)

재적	25	출석	15	위임	3
----	----	----	----	----	---

※ 준비위원 재적 총원의 과반 참석으로 회의 성원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3/2(목) 7차 정기회의록 (붙임)

- 분야별 협치 간담회 일정 공유 부분에 마을계획단연합(x) → 마을계획단 단장모임(o)으로 정정 요청한다. 마을계획단연합모임은 아직 정식으로 결성되지 않았고, 현재 연합 결성을 논의하는 단장들의 모임이므로 '마을계획단 단장모임'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다. (김희자)
 - 전차 회의록 수정하고, 현재 성북마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도 정정된 것을 재업로드하겠다. (김기민)

- 현황 공유

- 신규 회원 가입신청자 소개
 - 김연만 : 종암동 거주. 걸기지도자 활동. 국외 20여년 거주하다 성북 이주한지 4년차. 성북에 대해 알고 싶어서 걸어 다녀보았다. 궁금하던 차에 박정근 준비위원님 권유로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 장공임 : 봉사활동. 비둘기봉사회.

○ 회비 (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1월	210,000	32,300	177,700
2월	190,000	52,520	137,480
합계	400,000	84,820	315,180

○ 구청 담당부서 미팅

- 3/7(화) 10:00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초안 공유
홍수만 의장, 김기민 간사, 은현기 마을기획팀장, 문혜성 주임
- 3/15(수) 11:00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의견 교환
홍수만 의장, 김희자 부의장, 김기민 간사, 협치조정관, 한재현
마을민주주의과장, 은현기 마을기획팀장 등

○ 임원회의

- 3/8(수) 16:00 지역사회혁신계획수립계획 구청측 초안 검토, 민간측
수정제안안 논의. 홍수만 의장, 김희자 부의장, 김기민 간사
- 3/15(수) 10:30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안) 대응 논의
홍수만 의장, 김희자 부의장, 김기민 간사

- 의장 공유 사항 : 좀 더 효과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 획득 후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다. 중언부언, 감정적 발언은 의사 진행 차원에서
제제하겠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논의 안건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초안 공유/검토 (붙임)

- 계획(안)에 대한 의장 브리핑 (홍수만)
- 쟁점 사항 (홍수만)
 - 민관 협치 실무 추진단 내 영역별 실행 그룹 : 기존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그대로 옮겨온 형태.
 - 구청장 단독 위원장, 구의원 당연직 위원 : 구의회에서 수용할지
의문.
 - 성북 총회 : 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 성격으로 가면 안 된다.

- 민간에서 수 차례 회의한 것을 구청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데 협의회 모르게 만든 것. 따로 따로 할 거면 뭐하러 협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간의 과정에 참여한 민간측 인원을 부풀려서 계획서에 기재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종안)
 - 준비위 임원단 차원에서 우선 검토 후 민간측 1차 수정안 보냈고, 해당안을 반영하여 현재는 일부 수정되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 면담 등에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더 많게 되어 있기는 하다. (김기민)
- 들러리 하게 생겼다. 이런 식이면 할 필요가 없다. (박정근)
- 실무 추진단 내에 분과 조정 여지가 있다. (전미희)
 - 추후 협의 가능하다는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민주주의과, 협치조정관은 기존 조직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내부 원칙으로 삼고 협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이다. (홍수만)
 - 협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전미희)
 - 1/n 민간 주체들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홍수만)
- 마을기획팀장은 협의회 준비위 정기회의에 매 번을 와서 읍서보 참가라 말 못한다 하고는 뒤에서는 다 꾸며놓았다. 협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이종안)
 - 일단 오늘은 협의회 내부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안)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마을기획팀장에게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서 오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안 온 것은 아니다. (홍수만)
- 마을기획팀장 참석해서 이야기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의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유제훈)
 -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관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지, 기만하고 속였다 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성북구 내 다른 주체들을 규합할 만큼의 역량을 안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와의 협상력이 약한 것이다. 단계를 밟고 노력할테니 시간을 달라던가 등의 방식으로 과격하게 추궁하는 식은 안 된다. (김경서)
 - 말을 길게 하지 말라. 핵심만 짧게 이야기해달라. (유제훈)
 - 의장에게 발언권 얻어 발언중이고, 아직 발언이 끝나지 않았다. 경청해주셨으면 한다. (김경서)

- 매번 말을 길게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유제훈)
- 아직 말을 한지 1분도 되지 않았다. 3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상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김경서)
- 비웃지 말라. 매번 그런 식으로 비웃는다.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유제훈)
- 비웃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다. 제가 말을 길게 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제가 언제 매번 비웃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곳은 협치에 참여하겠는 지역 주민들이 모인 곳이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셔야 한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김경서)
- 지금까지 수 차례 회의하는 동안 구청에서 배석했다. 들러리 하지 말자 이야기도 했다. 지금 와서 다 짜서 온 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진척시켜 온 것이 후퇴하게 되었다. 그 협의 과정을 언제 또 할 것인가. 앞뒤가 안맞는다. 이제 와서 또 몇 번 만나 토론하고 협의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박정근)
- 구청 나름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협의회는 시민협력플랫폼을 통해 활동을 조직해나가고자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이 행정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상호간에 협력 지점을 매칭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구 따로, 시민협력플랫폼은 민간에서 따로 가는 건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따로 가게 된다면 어느 국면에서 만날 수 있을지, 그 지점은 어디쯤이 될지 짚어주면 좋겠다. (전미희)
 - 이렇게 되고 있는지 협의회는 몰랐다. 민간을 중심으로 조직해서 성북 전역을 아우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알았으면 안 했다. (박정근)
 - 8월 협치 설명회에서 두 개의 사업을 놓고 설명을 했다. 하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다른 하나는 시민협력플랫폼이다. 두 단위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이야기 했고 민간은 시민협력플랫폼을 통한 민간 협력 기반 강화와 민관 협치 역량 확보를 이야기 했던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추후 민관 협치로 합쳐질 수 있는 접점이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가 그 지점을 만들어놓아야 관과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미희)

- 구청에서 원하는 협의회 규모, 역량을 볼 때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될지, 이 계획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김경서)
 - 협상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일단 기존 민관 거버넌스 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을 세웠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만)
- 타 지역 현황을 공유하자면 민간은 시민협력플랫폼, 구청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가는 식으로 가고 있다. 성복은 그렇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한 구조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구청도 8개월여의 기다린 것은 사실이다. 계획(안)이 나온 것도 얼마 되지는 않았다. 계획 수립해서 제출한다고 바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예비 단계이고, 본 계획에서 조정 가능하다. 초기 계획안이 본 계획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는 하지만 아예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다. 오전 미팅에서 수립계획안대로 추진할 경우 시민협의회가 함께 할 것이 없어 보이고, 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아도 계획을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만)
- 부청 부서 팀장이 와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유제훈)
 - 내부적으로 먼저 입장을 정리한 뒤 만나는 게 좋겠다. (홍수만)
 - 준비위원회 의견 확인해보자. (유제훈)
- 회의에 앞서 토론의 자리. 각자 자기 의견 누구나 표출할 수 있다. 잘 해왔는데 계획안 하나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 우리 회의 참석했는데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토론의 장이라는 건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지 않나. 이왕이면 이런 계획서 하나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경청하면 좋겠다.

어제 구청 간담회 참석한 내용 공유한다. 계획안 상으로 볼 때 협의회가 참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대표, 복지협의체 위원장 등 기존 거버넌스 조직의 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에 참여한 상태였다. 지원신청서 함께 보는데 민간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대표가 말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나왔다. 시민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협치조정관이 말하길, 그간 해온 활동해온 게 있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나온 대안이 뭔지 물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마을기획팀장에게 들어보라고 답했다. 그 동안 매번 참석했던 사람이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 답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마을기획팀장은 옴서버로 왔을 뿐이라고 말을 시작하더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고, 단체 대표 자격으로 오시는 분도 있다. 협의회가 구청에서 원하는 조직들만 있는 곳은 아니지만, 나름의 노력을 해온 단체로서 협의회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참석자들도 수긍했다. 어제 간담회에선 당장 계획 수립 서두르지 말고 일단 협의회와 논의한 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락 되었다. 오늘 협의회 정기회의가 있으니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오늘 협의회 준비위 정기회의 전에 구청과 실무 미팅 가졌다. 미팅 가지며 느낀 바는 우리 역량을 채우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청이 마련한 계획안을 보며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협치조정관 의견은 거버넌스 조직들이 모두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참여할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각자 단체에서 대표성 갖고 있던 분들인데 차려진 판에 합류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갖고 있었다. (김희자)

- 왜 미리 이야기를 아직 해주지 않았나. 미리 설명이 안 됐으니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괜한 설전이 벌어진 것 아닌가. (유제훈)
 - 의장의 모두 설명이 있었고, 그 때부터 순식간에 격론이 벌어져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 시작부터 미리 공유하고 시작하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희자)
- 협치조정관의 역할을 우리 생각대로 기대하는데.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뭔가? 그 분이 역할은 데코는 아닐텐데, 어디까지 역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박정애)
- 원칙적으로 민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이다. 안타깝게도 조정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존에 민관 거버넌스가 조직화된 곳을 중심으로 꾸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수만)

- 협치조정관 말하는 조정은 계몽, 설득이 깔려 있다. 조정은 상하 개념 없을 때 가능한거지, 지금의 조정은 우리를 설득을 전제로 하는 조정이다. 누가 누구에게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라는 건 딜레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미 구청은 나름의 원칙을 정했고, 상대측인 협의회는 조정 '대상'이 되었다. 그런 조정은 설득을 전제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설득의 대상이 된 상태다. 조정은 원칙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협치는 능력의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주민이므로 이미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 능력은 전략이 필요할 때 논하는 것이다. 협치 자체가 이상적인 것인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주민 참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정애)
- 구청은 협의회에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1, 2 차 간담회 참석했던 면면을 보면 이미 함께 할 후보군이 정해져 있고 협의회는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종안)
 - 초안을 지난 주 공유했고, 임원단이 우선 검토해서 1차 수정 제안을 한 상태였으나, 어제 간담회에서 공유된 계획안에 협의회 임원단이 제안한 내용이 오롯이 반영되진 않았다. (김기민)
- 박정애 준비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하자면 역량, 자격은 협치에서 협의회가 가져야 할 위상을 고려할 때 교섭 능력을 이야기 한 것이다. 협치성북회의의 구성을 사실상 협의회가 맡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의장을 구청장 단독으로 맡는 것에 반대한다. 당연직은 행정 영역일테니 제외하면, 민간위원에 참여하는 분들을 협의회가 맡을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제재해야 할 것은 우선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그 외 협의회 측에서 새로운 참여 단위를 꾸준히 섭외하는 등 시간을 갖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좀 더 시간을 확보해서 추진해보면 좋겠다. (김경서)
- 협치는 시니컬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협치가 잘되면 협치조정관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발전적으로 해보자. 협치라는 것이 누가 가고 오고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주도권 싸움이 아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위들에게 협의회가 같이 하자는 구체적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분들은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해서 안 될 것 같다. 문호를 더 넓히고 적극적으로 섭외해야 한다. (박정애)

- 어제 도시재생 마을네트워크, 성북협동조합협의회 참석해서 협치 설명했는데 관심이 낮았다. 관과 함께 설명하면 그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민간이 기존 거버넌스 조직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할테니, 관측도 협력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가령 협의회가 행정의 협치 파트너이니, 협치 활동에 참여하려면 협의회에 가입해서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를 세울 수도 있다. (김경서)
 - 이제 선거 국면이라 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당분간 행정 측에서 먼저 자리를 만들고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홍수만)
 - 선거 기간이라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박정근)
-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간이다. 협치성북회의가 우리 협의회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구청 역시도 현재 복잡한 상황이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것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추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존 거버넌스 조직을 무시할 수도 없다. 도시재생, 혁신교육 등 현재 민관 협력 사업 단위가 예산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활용할 수 있을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것이 구청의 생각이라고 본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상의 협치 실행 체계가 구청측 안대로 간다면 구청장이 단독 의장이고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 정도로 들어가는 안을 구의회에서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관 협치 실무 추진단 내 실행 그룹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들이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을 맡도록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홍수만)
 - 협의회에 영입하는 것인데 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시켜 놓는 것 기존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구청측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지만, 그와 별도로 그런 방식은 협치를 하자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시간을 갖고 영입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 (김경서)
 - 공감한다. 구청 측에서 협력해준다면 생각의 폭이 넓은 분들은 참여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시도해보고 안 됐을 경우엔 대안을 찾아보더라도 일단 시도하면 좋겠다. 간담회 참석했던

복지협의체 대표는 긍정적인 의견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김희자)

- 영입 노력을 안 하진 않았다. 그 동안 제스처 를 취했고, 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망을 가져야 할지 의문이다. (이선영)

- 선거 때문에 구청의 움직임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구청이 협의회를 민관 협치 구조상의 민간측 공식 파트너로 인식하고,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버넌스 조직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말고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민간측의 단독 접촉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섭외가 어렵다.

(김경서)

-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 분야에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송민기 선생님께 의견 부탁한다. (홍수만)
-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사업으로 보면 민간 측은 시민협력플랫폼 중심으로 고민했던 것이고, 지역사회혁신계획엔 별 관심 없었다. 반대로 구청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는 관심 없고 지역사회혁신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구청은 플랫폼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수 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런 상황에서 구청이 많이 인내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안을 보면 화가 나지만 냉철하게 보면 우리는 민민 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혁신계획은 민관 파트너십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협의회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민간측 단독 파트너 역할을 주장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현재 협의회 참여 구성을 볼 때 기존 민관 거버넌스 조직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민관 협치의 단일한 창구를 협의회로 할 것을 주장할 경우 단체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겠지만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민 협력에 대해선 구청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 측이 행정 측에 공공성 차원에서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해선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협의회 사무실 마련) 협치가 사업으로 갈 수도 없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갈 수도 없다. 협의회 모임도 서울시 협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협의회는 그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 본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우리가 주도하려고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송민기)

-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는데 제가 이상 부분에 치우쳤다.
협의회에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이고, 그게 무리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 같다. 송민기 준비위원님 의견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현 상태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진행되고 협치 실행 체계가 구축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단위밖에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경서)
- 성북을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같이 가자는 것 아닌가. 지금 와서 기존 거버넌스 조직 따로, 협의회 따로 가는 건 협치가 아니지 않나. 우린 들러리가 된 상황이다. 불참하고 있는 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정근)
- 우리끼리 하면 협치가 아닌데, 아무리 초대해도 안 오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나뉘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은 이런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협의회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홍수만)
- 여기서 결정해야 할 것은 다음의 선택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김경서)
 - A. 행정과의 협력을 통해 협치성북회의의 민간 영역을 사실상 협의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꾸준히 섭외한다.
협의회가 명실상부한 민관 협치 파트너로서 역할
 - B. 지역사회혁신계획은 포기한다. 구청 입장대로 진행.
협의회는 민민 협력 및 시민협력플랫폼에 집중
 - C. 협치성북회의의 전문가 그룹을 협의회가 담당
- 9차 회의에서는 구청 측 담당자들도 참여하면 좋겠다. (이종안)
 - 내부 협의, 충분한 토론 없이 행정과 대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민원 제기, 행정 성토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홍수만)
- 내년 지방선거인데 우려되는 것은 없을지. (박정근)
 - 협의회 사업 계획(안)에 조례 제정 TF 활동이 있다.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자치구 조례 제정해서 근거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 구청 입장에선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홍수만)
- 협치조정관 월급을 왜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이종안)

-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만)
- 영역별 의제가 협상 여지가 있는지? (배정학)
 - 토론회, 워크숍으로 구체화하고 성북 총회 등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게 계획안 초안 내용이다. (홍수만)
 - 기존에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 등의 이런 방식으로 했다.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구 예산, 정책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계획안 보면 안정적으로 기존 활동들을 연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의견 제시할 경우 위험부담으로 인식하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 거기서 협치 성패가 갈린다고 본다.
(배정학)
 - 구청 입장에서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설령 마을민주주의과가 의지가 있어도 다른 부서에서 협조 안하면 추진이 어렵다. (홍수만)
 -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등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추진 과정에 있다. 협치가 향후 그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기존 사업들이 행사성으로 가다 보니 주민들에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배정학)
- 계획서 민간대표가 협의회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데 가능한지? (이종안)
 - 민간 대표를 정함에 있어 조례에 근거할 이유는 없다. 말그대로 민간은 자율적인 조직이고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민간측 대표가 되려면 대표성이나 활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민)
- 운영 규약(안) 5차 수정안 검토/확정 (붙임) - 미논의
- 준비위원 내부교육 일정 논의 - 미논의
- 협치성북시민협의회 연간 일정/계획(안) 수립 - 미논의

시기		내용	비고
1분기	3월	● 준비위 내부 역량강화 교육	
2분기	4월	● 창립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협치 교육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제안 	
	6월		
3분기	7월		
	8월		
	9월		
4분기	10월		
	11월		
	12월		

- 기타

- 회의 진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다만 앞으로 의사 진행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서)
 -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나이, 직업 등등은 필장에서 요없다. 여기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좋겠다. (김희자)
 - 충분히 이야기 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달라.. (장공임)
 - 내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비웃는 경향이 있어 지적한 것이다. 회의 석상에서 무례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선 사과한다. 서로 경청하고 합의가 안 될 땐 거수로 결정하면 되지 말을 길게 하거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유제훈)
 - “나이도 어린게, 건방지게” 이런 발언을 유제훈 준비위원님이 발언하셨다. 그런 말까지 들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논의 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장님에게 향후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드린다. (김경서)

- 회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참여자들을 인격적인 존중해주셔야 한다.
성별, 나이에 따라 하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준비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 (홍수만)

- 다음 일정

- 일시 : 3/29(수) 13:30~15:30
- 장소 : 안암동 주민센터 4층 강의실 (예약 신청, 사용 승인 완료 후 공지 예정)